

해남군, 인구 7만 회복에 사활 건다

인구 증대 정책 종합계획 수립
128개 세부사업 331억원 투입
청년세대 유입·정착 중점 추진



해남군이 민·관이 함께하는 인구 증대 시책 발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조감도.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올해도 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해남군은 인구 7만 회복을 위해 2023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 128개 세부사업에 331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남 인구는 지난 2019년 하반기 7만명이 붕괴된 이후 현재는 6만5700명대에 머물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세대 유입·정착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비롯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민·관이 함께하는 인구 증대 시책 발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청년세대 유입·정착을 위해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임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문화복지카드사업,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신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입산부 건강

검진비 지원, 가사돌봄 서비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신생아 양육비 및 첫 만남 이용권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3월에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개관한다. 센터에는 해남군가족센터를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가족 어울림 공간이 한자리에 들어선다.

이 밖에도 전 군민이 인구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함께하는 내직장 주소찾기 캠페인과 이에 따른 전입 장려기여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소외되는 세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청소년 수당 매월 5만원씩 지급

문화·취미활동 등에 사용

진도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들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청소년 품기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13세~18세 청소년 1300여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

1년 기준 최대 60만원의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지급해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학원, 서점,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이·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 승인과 진도군 청소년 품기움 바우처 조례 제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5만원씩 바우처를 제공, 청소년들이 문화·취미활동 등에 참여해 문화적 박탈감 해소를 비롯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로서 그동안 선별적 복지혜택을 받던 일부 청소년들은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은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암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영암군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시 당일관광객의 경우 20만~30만원, 숙박관광은 30만~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내국인의 경우 20명 이상, 외국인의 경우 4명 이상으로 지역별로 차등지원한다. 당일 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3개소와 음식점 1개소 이상, 숙박관광 시에는 관내 관광지 4개소와 음식

점 2개소 및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여행업체는 관광일 5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입학 축하금

초교 10만원, 중·고교 20만원
올해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완도군이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민선 8기 공약인 입학 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완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 일을 기준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는 학생이다.

신청은 입학생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입학 축하금은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10만원,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신청 방법을 알리고 친권자, 후견인 등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돼 있는 학생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축하금은 자격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교육 복지 보편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완도사랑상품권 이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신항만에 계류중인 화물선이 부두에 주차 중인 수출용차량을 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목포항 지난해 물동량 전년 대비 5.9% 증가

수출입 13% 감소 연안 15% 늘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022년 목포항 항만물동량은 2531만t으로 전년 2389만t 대비 5.9%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입 화물은 676만t으로 전년 779t보다 13.3% 감소했으나 연안화물이 1855만t으로 전년 1610만t 대비 15.2%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수출입화물과 연안화물은 각각 26.7%와 7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수출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 630만에서 23.5% 감소한 482만에 그쳤다.

조선용 기자재가 중심인 철재 화물도 선박 건조 기간에 따른 선박블록 생산량의 일시적인 감소 등으로 8.6% 줄어들었다.

반면 연안화물은 목포-제주 간 RO-RO선을 이용한 연안컨테이너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따른 도서와 내륙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수송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855만t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군, 노동력 절감 생분해성 멀칭 지원

무안군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분해성 멀칭(말을 비닐 등으로 덮는 일) 농자재를 지원한다.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는 흙이나 물속에 있는 미생물·효소·박테리아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자연순환 멀칭 농자재를 말하며 필름, 종이, 액상으로 3가지 형태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현재 일반비닐멀칭은 수확작업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폐비닐 수거를 위한 노동력과 처리비용이 소요되며 토양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비닐 멀칭의 효과와 더불어 토양에서 생분해되어 노동력을 절감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대상은 마늘·양파 등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가별 최대 2ha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13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시, 청년도전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국비 6억 2000만원 확보

목포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인한 취업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6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라남도도를 포함한 3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목포시가 유일하다.

시는 올해 청년 120명 발굴을 목표로 총 6억 7000여만원을 투입,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를 통해 구직단념 청년을 모집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청년들은 단기(40시간 교육) 또는 중장기(200시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연계한 취·창업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목포시는 2021년에는 232명, 2022년에는 249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중 160여명을 취·창업으로 유도하고 사후관리실적을 인정받아 2022년 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